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381>

JCCT 2022-11-46

## 대학생 창업가의 창업활동 경험과 의미

# The Experiences and Meanings of University Student Entrepreneurs' Start-Up Activities

손은정\*, 김문섭\*\*, 김진숙\*\*\*

Eun-Jung Son\*, Moon-seup Kim\*\*, Jin-Sook Kim\*\*\*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 창업가의 창업활동 경험과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 재학 중에 창업한 대학생 5명을 대상으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심층면담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 창업가의 창업활동 경험은 첫째, 대학 진학 후 창업과의 만남, 둘째, 학생과 초보창업가의 역할을 병행함으로 겪는 대학생 창업가로서의 고충, 셋째,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사람 관계 속 고군분투, 넷째, 사업 결과로 인한 성취감과 사회적 인정을 받음으로 창업가로서 강렬한 성취감 경험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생 창업가의 창업활동 의미는 다음과 같다. 진로의 또 다른 길 발견, 진정한 리더로 거듭남, 인간관계를 통해 발전, 단단한 나로 성장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대학생, 창업, 경험, 진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s and meanings of university student entrepreneurs' start-up activities. For this purpose, the study had an in-depth interview with five university students that started a business in university in September~November, 2021 and analyzed their data.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University student entrepreneurs had several experiences with start-up activities including having an encounter with a start-up in university, suffering difficulties as university student entrepreneurs that studied as students and also ran business as beginning entrepreneurs, fighting alone in their relations with various people, and having an intense sense of achievement as entrepreneurs for their business results and social recognition. Their start-up activities had different meanings such as finding a new career path, becoming a true leader, making progress in interpersonal relations, and growing to be more robust. These findings will serve as basic data to develop policies that will promote start-up education and supports in university.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 Start-up, Experience, Career

\*정회원,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융합학과 박사과정

\*\*정회원,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융합학과 정교수

\*\*\*정회원,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융합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9월 30일, 수정완료일: 2022년 10월 27일

계재확정일: 2022년 11월 3일

(이 논문은 2022학년도 손은정 석사학위취득논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구성함.)

Received: September 30, 2022 / Revised: October 27, 2022

Accepted: November 3, 2022

\*\*\*Corresponding Author: jskim@dhu.ac.kr

Dept of Lifelong Education Convergence, Daegu Haany university

## I. 서 론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실업을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펴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청년실업 문제는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게 되는 것이 ‘청년창업’이다. 청년창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성장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하는 방법[1]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창업으로 청년층을 유도하는 것은 실업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원활한 산업 생태계의 움직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2], 경제활동의 주체인 청년 인력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고 청년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업을 국가 경제성장의 돌파구로 인식하고 정부가 다양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1단계 산학협력선도대학(2012~2016, LINC),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2017~2021, LINC+)사업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창업인식 향상과 창업가를 발굴하고 기술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의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창업 지원정책들은 대학의 창업문화를 확산시키고 창업동기 및 창업 의지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3]. 대학 내에서 학생들이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 기회를 인식하고 나아가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하게 되면 이는 롤모델과 성공 사례가 되어 많은 학생이 창업에 도전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창업교육의 양적인 성장에 비하여 학생들의 실제적 창업도전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2019년 대학 학생창업기업 수는 대학교당 평균 8.5개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대학생들을 양산하지 못하고 있다[4]. 정부와 대학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대학생들의 창업이 적은 이유는 입시환경과 안정지향적인 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대학입시, 대학생들은 취업이라는 경쟁 속에 자신에 대해 탐색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 자기 자신과 일에 대해 제대로 고려해보지 않은 채 부모나 사회적 기준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거나 남들이 하는 진로 경로를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5].

둘째, 한국사회의 안정지향적인 문화도 대학생 창업의 저해 요인이다.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와 활동을 조사하는 국제 연구 프로젝트인 2021년 글로벌 대학생 기업가 정신 조사(GUESS)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직업 또는 회사 선택 시 위험 감수 의향은 국제 평균에 비해 낮지만, 안정성이 높은 직업 선호와 위험 회피 의식은 국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6]. 대학생 창업이 중요한 이유는 대학은 창업자를 배출하는 원천이며 대학생은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기업가의 역할을 지니기 때문이다[7]. 대학생의 창업 활성화는 중요하지만, 대학생 창업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대학생 창업에 관한 기존 문헌을 살펴보면 대부분 청년 창업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청년 창업가들의 경험, 역량, 개인적 심리적 요인, 창업과정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8-10].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의 성공과 실적이라는 결과보다 창업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과 의미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고, 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첫째, 대학생 창업가의 창업활동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 창업가의 창업활동 경험에 따른 의미는 어떠한가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방법

대학교 재학 중 창업을 선택한 대학생 창업가의 독특한 경험과 그 경험들의 의미는 어떠한지 등을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질적 사례연구를 선택하였다.

기존 대학생 창업 관련 연구는 청년 창업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대학생들을 잠재적 창업자로 분류하여 진취성, 위험감수성, 혁신성, 창업효능감 등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대해 양적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질적 사례연구가 대학생 창업가의 경험에 대해 의미 있게 논의되지 못했던 부분을 살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유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참여자(자)는 대학 재학 중 창업하여 본인이 창업한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

20세~30세에 해당하고, 창업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대학생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5명으로 성별은 남성이 4명, 여성은 1명이다. 창업활동기간은 모두 5년 이내이며, 학부 재학생 2명, 휴학생 1명, 졸업생 1명이다.

### 3.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일대일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1차 면담은 미리 준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2차 면담은 COVID-19 상황의 방역수칙 강화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을 전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게 면담 내용을 전사한 후 확인받는 방법으로 연구참여자를 통한 타당도를 확보하였고, 삼각 측정법 (investigator triangulation) 사용 즉,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1인, 동료 연구자 1인과 함께 해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연구 자료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였다.

## III.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대학생 창업가로서 창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독특한 경험과 의미에 대해 밝혀 보고자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4개의 범주와 12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창업활동 경험		경험 의미
상위범주	하위범주	
창업과의 만남	창업교과목, 창업동아리 참여 경험 창업지원사업에 도전	진로의 또 다른 길 발견
대학생 창업가의 고충	제품개발(출시) 지연 자금 압박 견뎌내기 실수에서 배움 혼자라는 외로움 일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	진정한 리더로 거듭남
사람 관계 속 고군분투	갈등 경험 어린 나이로 인정받지 못함 힘이 되는 사람	인간관계를 통해 발전
창업가로서의 강렬한 성취감	사업결과로 인한 성취감 창업활동으로 사회적 인정받음	단단한 나로 성장

그림 1. 대학생 창업가의 창업활동경험과 의미 도출  
 Figure 1. Entrepreneurship experience and meaning of university student entrepreneurs

### 1. 대학생 창업가의 창업활동 경험

#### 1) 창업과의 만남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성적에 맞추어 학과를 선택하고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우연히 학과 동아리나 창업교과목을 수강하면서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점수에 맞춰서 입학하게 됐습니다. 내성적이기도 하고 학교생활이 너무 재미없어서 그만둘까했는데 학과에서 동아리가 OO연구회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창업에 흥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연구참여자 B).*

*창업동아리 활동도 하고, 경진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학교에서 하는 창업교육도 듣고 이것저것 창업관련 된거는 다 한 거 같아요. 멘토링도 참여하고, CEO특강 이런 것도 찾아서 듣고 (연구참여자 A)*

창업교육의 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질 수 있는데[11] 연구참여자들 역시 적극적으로 창업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컨설팅과 멘토링 등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현실창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이는 다시 창업준비 활동으로 연결되어 교육이 필요하게 되고 다시 창업 교육을 받는 등 순환작용으로 창업교육을 경험하였다. 또한 정부와 창업 관련 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고 창업 이후에도 교육과 컨설팅, 지원금, 시설과 공간 제공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창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2) 대학생 창업가의 고충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입학 후 자신의 진로를 창업으로 결정하고 창업준비단계에서 창업단계까지는 거침없이 행동으로 실천하였고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지만 창업시작 단계에서 제품개발이나 출시가 지연되고, 자금 압박을 견뎌내고, 실수를 통해 자기반성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개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 몇 년 2~3년 넘게. 만드는 기술이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계속 실패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 (...중략...) 그냥 되게 안 됐어요 뭘 해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E).*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창업에 대한 친구들과 부모님 등 주위의 우려와 부정적인 태도에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기도 하고, 대학생이면서 창업가이기 때문에 학업과 창업활동을 병행해야하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창업하고 딱 3년 될 때쯤 주변 친구들 이제 취업 준비할 때라서. 이제 다 취업한다고(...중략...) 혼자가 되더라고요.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계속해야 되나? 그 만두고 다른 거를 해볼까. 돈 보다는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연구참여자 A)*

*저는 창업하면서 학교도 계속 다니고 싶었거든요. 근데 잠을 못 잤어요. (...중략...) 제가 다니는 학과는 유급의 압박이 늘 있었거든요. (연구참여자 C)*

### 3) 사람 관계 속 고군분투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창업에서 중요한 것을 사람으로 꼽았다. 창업활동 자체가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그만큼 갈등의 요소도 많을 수밖에 없다. 연구참여자들은 일반 대학생들보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갈등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게 되고 성숙해진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팀 구성하는 거였어요. 진짜 마음 맞는 사람을 이 사람의 속내가 뭔지 그걸 모르니까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D)*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대학 재학 중 20대에 창업한 상황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했다. 창업활동에 누구보다 진지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창업가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다. 또한 대부분 1인 창업으로 시작하여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채용되는 직원의 나이가 자신보다 많아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약간 나중에 대표를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약간은 수직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창업하여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업체 관계자, 고객, 직원들과의 관계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고 예방하고자 노력하며 사회적 관계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 4) 창업가로서의 강렬한 성취감

창업활동은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 실수, 위험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이 부정적인 성격의 경험만 한 것은 아니다. 연구참여자들은 불가능할 것 같은 도전을 이겨내고 원료배합 개발에 성공하거나, 천신만고 끝에 자신의 제품이 출시되어 첫 매출 발생 등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창업활동의 결과물로 성취감을 느꼈다. 또한 창업활동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으면서 창업가로서 강렬한 성취감을 경험한다.

*저희 기계를 완성해서 첫 매출을 낸 그때 그 순간이 제일 좋았죠. 근데 사실 첫 제품을 판매하는 순간 기쁘다기 보다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2~3번 기계를 부수고 다시 만들고 해서 개량했어요. 다섯 번 도전 만에 완제품을 내놓고 이제 첫 매출도 올린 거예요. (연구참여자 E)*

연구참여자들의 성취 경험은 자신들이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여 수행한 사업의 성과물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사업 활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업의 재미를 느끼며 자신이 일을 하는 의미를 찾기도 한다. 이를 통해 성취 경험은 창업활동으로 인한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잊게 하는 창업활동의 동력이 됨을 알 수 있다.

## 2. 대학생 창업가의 창업활동 의미

### 1) 진로의 또 다른 길 발견

연구참여자들은 창업준비 단계에서 창업교과목 수강과 창업동아리 활동 참여, 창업지원 사업 지원 및 선정 등은 창업이라는 진로를 발견하고 자신의 진로를 창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창업을 계획하고 대학에 진학한 것은 아니지만 창업교과목을 수강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후 창업동아리 활동, 경진대회 참여 및 수상, 전문가 멘토링, CEO 특강 등 다양한 창업교육을 주도적으로 경험했다. 또한 정부와 창업 관련 기관의 창업지원 사업 등에 도전한다. 이는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의 결과이며 자신들의 진로를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하였기에 ‘창업’이라는 진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진로를 창업으로 결정한 건데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서른이나 마흔에도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또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연구참여자 E)*

대학생에게 진로결정은 성인으로 이행과정에서 주된 발달 과제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낮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진로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학생이 되어도 진로와 관련된 목적이 없거나 방향의식 없이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진로결정 과정에서 부모의 개입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5]. 이는 대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나 정체감형성 없이 관행적으로 진로준비를 하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진로는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과 경험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고 실현하면서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으로서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고 주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2) 진정한 리더로 거듭남

대학생 창업가들은 창업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학생과 창업가라는 역할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다양한 고충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는 의미를 가진다. 창업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대학생 창업가라고 해서 일반 창업가와 다르지 않다. 기업의 리더로서 선택에 따른 책임, 경영 의사 결정은 오롯이 창업가 자신을 향한다.

창업가에게 사업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과정이다[12]. 여기서 한계란 창업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 올바른 고객을 발굴해내는 역량, 창업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정적인 경험을 과정으로

변화시키면서 풋내기 창업가에서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른 곳에서 폐기되는 폐자원을 재활용해서 토목에다가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데 쓰일 수 있는 제품 개발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중이에요. (연구참여자 A)*

창업활동을 하면서 당장 수익이 없더라도 자신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며 진정한 기업의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인간관계를 통해 발전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창업도 결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연구참가자들의 면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사람’이었다. 창업활동을 하면서 동료, 직원, 거래처 등 사람들과 갈등 관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로 인해 무시를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도 한다. 관계는 학습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무조건 친밀하고 관대한 관계만이 옳은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거리를 두거나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직원을 채용하는데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게 되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직원에게 업무에 대해서만 소통하여 관계의 거리를 두거나 대표와 직원의 역할을 구분하여 조직 내 갈등 요소를 차단하기도 한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에 대한 문제를 한두 번 정도 겪고 나니까, 이제 일은 못해도 배우면 되고 능력은 키우면 되는데 일단 사람이 돼야 된다고(...중략...) 면접을 보면 대략 느낌이 오더라고요. 간접 경험도 있고 직접 경험도 있다 보니까 그게 쌓이다 보니까. (연구참여자 B)*

갈등을 유발하는 관계도 있지만 힘이 되는 관계도 경험한다. 창업교과목 수업에서 만난 교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동료 청년 창업가들과의 교류에서 스트레스도 풀고 사업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면서 창업활동에 있어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Noam Wasserman 교수에 따르면 스타트업에서 실패 원인의 65%가 인적 요인 때문이라고 하였다[13]. 바꾸어 말한다면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창업가 개인에게도 심리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학생 창업가들은 창업활동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인간관계를 일반 대학생보다 한 발 앞서 사회를 경험하고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4) 단단한 나로 성장

성취 경험은 창업가가 수많은 시행착오, 도전과 고민,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 수행한 사업의 성과물로 얻어지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창업활동 중 성취 경험을 통해 내면적으로 자신감, 도전정신, 진취성 등이 키워지고, 외면적으로는 외모의 변화를 통해 단단한 나로 성장하게 된다.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다는 성취감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인정욕구의 충족은 창업가의 내면과 외면을 단단하고 강인하게 만든다.

*저는 학창 시절에는 발표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좀 아웃사이더 느낌이었는데 (창업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내가 직접 다 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마음속은 뜨거운데 그걸 표출을 잘 하는 게 되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창업하고 좀 많이 변했어요. 저는 뭐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E)*

창업가는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창업가는 매우 행동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창업가 학습의 대부분이 경험에 기반한다는 점에 주목했다[14, 15]. 특히 경험과 관련한 창업가 학습에서 강조되는 것은 '과정'이다. 창업가에게 경험을 대체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을 만큼 창업가 학습에서 경험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16]. 정부나 개별 대학이 청년·학생들의 창업을 독려하며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 창업 환경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20대 대학생이 성공하기는 어렵다.

연구참여자들은 창업활동 중 성취감을 경험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진취성이 생긴 반면,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한다. 이는 기업가정신으로 대표되는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과 연관이 있는데 개인의 심리적 특성일 수도 있으나 창업활동을 통해 더 강화되거나 학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저는 좀 약간 과감해졌더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도전이나 진취성, 무모한 도전은 아니고 적어도 그거를 도전을 해서해야 되겠다는(…중략…) 어차피 해쳐나가야 되니까. 이제 필드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들은 창업으로 인한 강렬한 성취감을 경험함으로써 자신감, 진취성과 도전정신을 함양하게 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감을 알 수 있다.

## IV. 결론 및 논의

대학생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과 의미에 대한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에서 창업은 진로선택의 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대학에 진학하여 창업교과목 수강과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창업 기회를 인식하고 창업을 하였다. 대학의 창업교육이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정부나 창업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주도적으로 진로탐색과 진로준비행동을 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일반 대학생들과 다른 진로를 선택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혼자라는 외로움을 등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했다. 창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진로장벽에 부딪혔을 때, 상시적으로 접근 가능한 창업상담 전문가가 필요하다[17]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도 성인 초기에 진입하는 대학생들이 창업활동을 하는데 창업교육 등의 기술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정서적 지지를 포함한 창업진로상담 등 다차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 창업가의 다양한 창업활동 경험은 사회적 인재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창업준비단계, 창업단계, 창업 이후 성장단계 등 창업활동 전반기에 걸쳐 다양하고 독특한 경험을 배움으로 변화시켰다.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고용 창출과 매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들은 다양한 실무경험으로 배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족한 자신의 내면을 채워가는 노력을 통하여 경험들을 배움으로 확장시켰다. 대학생 창업가의 창업활동은 자발적으로 도전적 경험을 찾아 배움을 얻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창업가의 학습에 있어 성공보다는 실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18, 19], 실패와 같은 부정적 경험이 창업가의 정체성 탐색과 발달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20].

셋째, 대학생 창업가의 창업활동의 다양한 경험은 삶에 대한 해답을 찾는 자기 성장과정이다. 자신감, 도전, 진취성을 함양하게 되고 사업의 성과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적 인정을 받음으로써 다시 창업활동의 동력을 얻게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군분투하는 경험과 초보 창업가로서의 어려움 등 경험과 경험이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실천한다.

향후, 대학생 창업가의 전공, 창업 유형, 업종, 창업 활동 기간에 따라 경험의 내용과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형별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1] H. S. Jang, "The Difficulties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as Young Entrepreneurs Speak", Korea Leaf Association, 2014.

[2] KEIS, "Policy Direction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or Realizing the Creative Economy", Employment Issues, Vol. 6, No. 4, July 2013.

[3] H. W. Pang, "The Impact of Start-up Support Programs on College Students' Foundation Motiv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 No. 4, pp 599-605, 2021.

[4] Ministry of Education, NRF of Korea, "2019 University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Research Report", 2021

[5] M. H. Hwang, H. J. Cho, Y. J. Cho, and J. W. Ba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Meaning of Work and Experience in the Career Decision Proces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 32, No. 3, pp. 675-699, 2013. UCI: G704-001037.2013.32.3.010

[6] Korea Youth Entrepreneurship Foundation, "2021 Global Student Entrepreneurship Survey", 2021.

[7] J. H. Seo, "The Thinking of the University Students about an Entrepreneur in Korea, China, and Japan",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Vol. 43, No. 1, pp 153-171, 2006. UCI: G704-001274.2006.43.014

[8] J. H. Kim, "The Effect of Social Entrepreneurship and the Social Support on Entrepreneurship Behavior", Chung-Ang University Ph.D.dissertation, 2013.

[9] S. Y. Moon, B. Y. Hwang, "An Empirical Study on Start-up Opportunity Sources Analysis and Opportunity Search of Korean Young Entrepreneurs - Focused on a participants of Seoul 『Young Entrepreneurs 1000 Project』 -", Th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2011, No. 8, pp 103-126, 2011. DOI : 10.16972/apjbe.6.4.2011.12.39

[10] J. W. Park, T. W. Ahn, and E. B.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of Young Entrepreneurs' Characteristic and Entrepreneurship upon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Conference Paper, Vol. 2013, No. 6, pp 1-27, 2013.

[11] M. J. Kim, S. H. Kim,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 Focusing on University Students who took Entrepreneurship-related Cours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9, No. 3, pp 117-130, 2021.

[12] H. R. Park, H. S. Oh, "Lessons from Experience of Entrepreneurs", Journal of Corporate Education and Talent Research, Vol. 18, No. 1, pp 133-160, 2016.

[13] Noam Wasserman as H. Y. Lee. "Entrepreneur's Dilemma", Seoul: Eco-Libro, 2013.

[14] Rae, D., Carswell, M. "Towards a conceptual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ial learning",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Vol. 8, No. 2, pp 150-158, 2001.

[15] Cope, J., "Entrepreneurial Learning and Critical Reflection: Discontinuous Events as Triggers for "Higher-level" Learning", Management Learning, Vol. 34, No. 4, pp 429-450, 2003.

[16] Dalley, J., Hamilton, B, "Knowledge, context and learning in the small business",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Vol. 18, No. 3, pp 51-59, 2000. UCI: G704-SER000001591.2015.18.3.001

- [17]M. K. Cho, S. H. Lee, "A Study on the Role of Counselors for the Successful Start-up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 : Focusing on Mediation Role of Counseling Outcome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Vol. 12, No. 4, pp 215-244, 2017. DOI: 10.24878/tkes.2017.12.4.215
- [18]Cope, J., "Entrepreneurial learning from failure: An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26, No. 6, pp 604-623, 2011. DOI: 10.1016/j.jbusvent.2010.06.002
- [19]Politis, D., Gabriellsson, J., "Entrepreneurs' attitudes towards failure: An experiential learning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and Research*, Vol. 15, No. 4, pp 364-383, 2009. DOI:10.1108/13552550910967921
- [20]Scott, M., Lewis, J., "Re-thinking entrepreneurial failure. In: Lewis, J., Stanworth, J., Gibb, A. (Eds.), *Success and Failure in Small Business*", Gower, Hampshire, 1984.